

# 통계적 기법을 통한 예술작품의 친밀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 연구

서명애<sup>1</sup> · 이상복<sup>2</sup>

1 서경대학교 산업공학과 박사과정, 2 서경대학교 산업공학과

## A Study of New Analysis on the Intimacy about Work of Art through Statistical Techniques

Suh, Myungae<sup>1</sup> · Ree, Sangbok<sup>2</sup>

1 Dept. of Industrial Engineering, Seokyeong University

2 Dept. of Industrial Engineering, Seokyeong University

### ABSTRACT

We tried new interpreting about the work of art in this paper. The work of art respects the intention of the artist to make it and interprets intention until now. After critics distinguish by a period, an area that they set to philosophical thought which is the timex and interpreted. We set to each one subjectivity and interpreted between artist to make the work of art and appreciator. But in this paper, we tied various criteria which appreciates the work of art. We tried so that we presented the intimacy each other newly. Otherwise we tied with the subjectivity of the individual and are the try to be an objectification low through statistical technique. We looked into the culture and art in the introduction and explain the discussion about the work of art interpreting which the main subject. We set the category 6 area, and explain an each criteria explanation and assessment method. We tried to propose new interpreting as the intimacy to be statistical technique result of the assessment analysis.

### 1. 서론

오늘날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문화가 있다. 문화가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구성원의 행태를 결정짓고 과학과 예술에 영향을 미친다. 21세기를 맞아 문화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는 것도 이러한 문화의 영향력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경제를 국가경쟁력의 주요 변수로 보아왔지만 이제는 문화를 가장 중요한 결정적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문화가 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핵심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이러한 문화의 중심체에는 '예술'이라는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

예술은 인간이 수행하는 많은 활동 가운데 사물의 창조와 같은 특수한 활동을 지시하는 개념이며, 과학이나 도덕과 구별되는 고유한 가치의 활동으로서 독립된 영역을 이루고 있다. 예술'이라는 단어는 개념적인 것으로 시대와 민족에 따라 다르며, 동일 시대나 동일지역 내에서도 유파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작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이 예술작품으로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술이란 분명 '표현형식' 즉,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가상(假象)의 형식을 창조한다. 예술작품의 평가는 작가의 의도와 다르게 감상자 자신의 가치로 평가를 내리는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한 시대의 예술 영역은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예술의 소재 또한 국한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예술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지금까지 예술작품은 예술작품을 만든 작가의 의도를 존중하여 의도대로 해석하고, 비평가들은 시대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시대적인 철학적 사상에 맞추어 해석하였다. 예술작품을 만든 작가와 감상자 간에 각자의 주관에 맞추어 해석을 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예술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범주를 묶어서 서로의 친밀도를 새로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시대순으로 혹은 지역간의 2차원적인 평가였다면, 이번 연구는 다양한 차원(범주)으로 평가하려는 시도이다. 통계적 기법을 통하여 개인의 주관을 묶어서 객관화하려는 시도이다. 먼저 문화와 예술을 살펴보고, 다음에 예술품 해석에 대한 논의를 설명하고, 8개 범주를 설정하여 각 범주별 설명과 평가 방법을 설명하였다. 감상자들의 예술 작품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평가 결과를 통계적 기법인 친밀도 분석으로 새로운 해석을 제안하였다.

## 2. 예술품의 해석

### 2.1 예술에 대한 정의

고대에서 예술의 개념은 자연을 모방하는 일종의 테크닉(기술)이었다. 그러나 근·현대에 이르러 예술은 유용성에서 해방된 자율성을 가진 무엇인가였다. 예술이란 표현형식으로 본연의 인간 감정을 시각, 청각 또는 상상력을 통해서 지각할 수 있게 하는 형식을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학자들의 정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예술에 대한 정의

학자	정의 내용	의미 분석
플라톤	미의 이데아, 즉 절대미를 내세우면서 그것이 이성적인 선과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함으로써 도덕에 의거한 미 또는 예술을 주장함.	조리, 제화, 의술을 '예술'이라 함
아리스토텔레스	도덕적, 정치적 맥락으로부터 분리해 관객에게 이성의 힘을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포와 연민과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봄.	예술을 권선징악과 무관한 것으로 봄
스토아 학파	정신의 비합리적인 운동에서 나타나는 쾌락인 헤도네(hedone)가 아니라, 정신을 합리적으로 고양시키는 쾌락인 카라(chara)를 드높인다고 봄.	예술을 합리적인 방향에서 옹호함
필로데무스	도덕과 지성적인 진리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봄으로써 '순수 예술' 즉 '예술을 위한 예술'의 길을 암시함.	
롱기누스	쾌락과 지적 신념을 넘어서 있는 숭고한 정서, 즉 황홀을 낳는 것이 예술이라 하여 예술가의 천재적인 영감과 자존심을 강조함.	예술이 철학과 도덕을 넘어서 있는 것임을 암시함
샤프츠베리	자연미를 위대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감정인 숭고를 중시함.	미를 표현하는 예술 영역으로 구분함
A.바움가르텐	감성적 인식 이 독자성과 자율성을 피고서 어떻게 예술의 영도를 구획할 수 있는가를 가늠함.	'미학'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만듦
칸트	미적인 영역 또는 예술 영역이 도덕이나 학문을 떠나서 그 어떤 것에도 봉사하지 않는 보편성을 띤 독자적인 영역임을 입증함.	저서 '판단력 비판'에서 논증함
헤겔	'미학'을 통해 예술미를 자연미보다 우월한 것으로 정립하고, 예술의 목적이 결코 자연의 모방이 아니라고 정의함.	예술을 철학과 종교에 못지않은 것임을 확립 시킴

### 2.2 예술 표현 형식

예술은 감정의 주관적이고 창조적인 표출로 보는 관점에서, 예술은 일정한 가치에 관계된 의미의 정신적인 존재로서 문화의 특수한 영역의 일부분이

며, 일정한 이념을 목표로 하는 정신적 가치창조의 한 형식이다. 그렇지만 문화와는 달리 예술은 인간의 정신적 사회적 생활 전반에 걸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예술은 그 시대의 집합적인 의미체계와 정서구조 및 시대정신을 가장 확실하게 반영하고 표출해주는 매개체가 되며, 한 사회의 문화가 생성-수용-전승되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박명규, 1995: 468. 정광열, 1997: 13).

예술이란 미적 작품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 활동으로 이런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가가 그의 예술을 담은 것을 예술작품이라고 한다. 예술작품 속에서 예술은 주체적인 사물을 통하여 보편적인 표현을 하고자 하는 기술인 동시에 지적 활동이다. 따라서 예술작품이란 사물적 측면을 넘어서는 제작된 사물 이상의 어떤 것 즉, 알레고리(Allegorie)와 상징(Symbol)을 포함한다. 즉, 예술은 개성이 그 본질적 요소를 이룸으로써 개성적이면서도 보편적인 표현을 실현한 것이 뛰어난 예술작품이라 할 수 있다.

### 2.3 예술작품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

하르트만에 따르면 예술작품은 객관화한 정신, 즉, 작가의 '살아 있는 정신'에서 빠져 나간 내용이 물질 속에 들어가 하나의 대상이 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예술작품은 '물질적 바탕'과 '정신적 내용'의 두 계층으로 이루어지며 서로 '현상관계'에 있다. 즉, 물질적 바탕에서 정신적 내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진중권, 1997: 105).

다빈치는 예술의 목적을 외부세계의 과학적 인식에 두었고, 미켈란젤로는 미의 목적을 '미의 창조'에 두고 아름다움은 예술가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초개인적이며 객관적인 아름다움으로 보며, '내면의 형상미'를 실현하는 활동으로 여겼던 것이다.

빌플린(Heinrich Wollfin)의 예술작품의 해석에 대해서, 르네상스에서 바로크의 변화를 시형식(視形式, Seh-form)의 변화, 즉 사물을 보는 눈의 변화로 설명했다.

헤겔(George W. F. Hegel)에게 예술은 진리가 감각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진리는 예술작품 속에 이미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고전주의적 예술관으로 함축할 수 있으며 수용자는 작품이 던져주는 의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예술작품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읽어내는 일, 섬세한 차이를 지각하고 구별하는 일은 심미적 경험에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예술은 삶과 같이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 이러한 과정은 훈련이 필요하다. 예술품 선호를 결정하는 요인을 엘렌 위너(Ellen Winner)는 복잡한 예술작품은 새로운 도전을 주고, 호기심을 충족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 2.4 예술작품에 대한 시대별 구분

서양 미술사를 기준으로 인류가 예술작품을 일상생활에서 감상으로서의 대상이 된 역사는 오래지 않다. 그 대상이 감동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표현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무엇인가를 전하려는 의도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각각의 사조마다 예술가라 불리는 사람이 어떤 고뇌로 새로운 창작의 작품을 만들어 낸 것이 예술작품으로 다음과 같이 시대적 구분을 한다.

- 1) 원시예술 2) 고대예술 3) 중세예술
- 4) 19세기 예술 5) 20세기 근현대예술

### 3. 예술작품의 6개 범주설정

지금까지 예술작품 해석은 객관적으로 작가가 활동한 시대별이나 작가의 출생지에 의한 지역적으로 구분되어 왔다. 또한 예술 작품은 감상자의 주관에 의지하여 해석하나 감상자의 가치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즉, 하나의 작품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 들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또한 예술품을 보는 시각적 관점(형식, 의미)에 따라서 작품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예술작품 해석에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한다. 예술작품을 보는 다양한 관점(범주)들을 선택하여, 한 작품을 여러 감상자들이 다양한 범주로 동시에 평가하여 다양한 범주가 다양한 감상자들과 조합하여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작품들 간의 친밀성을 찾고자 한다. 친밀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통계적 기법을 적용한다.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선택된 예술작품들을 감상자가 선정된 범주별로 점수를 주어야 한다. 각 범주간 점수는 5점 척도로 나누고 감상자는 자신이 판단한 점수를 주며, 다변량 변수 해석의 일종인 크러스터링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친밀도로 작품을 새롭게 묶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예술품 해석을 객관화하려는 것이다. 다양한 감상자가 다양한 범주로 동시에 평가하여 친밀도가 높은 순으로 예술품을 묶었을 때, 시대를 뛰어넘어 묶인다면 예술가의 다차원 입장에선 시대를 초월하여 비슷한 부류의 가치관을 갖는 예술가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램이다. 또한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새로운 예술품 생성에 기여하는 여지가 있다.

#### 3.1 예술작품 해석 범주 선정

예술작품도 인간의 모든 부분을 담고 표현하는 것이어서 가치 평가를 내리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배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예술품 구분을 위한 범주로 미의 형식, 주관성, 객관성, 상징성, 미적정보, 의미정보 등의 6개 범주로 나누었다.

#### 3.2 6개 범주에 대한 설명

##### 1) 미(美)의 형식

예술적 미의 형식이란 우리의 직접적, 감각적, 정신적, 정서적 생활이 나타내는 형식에 합치한 것이다.

비어드슬리의 미적 대상들에게 적용 가능한 세 가지 기준을 살펴보면, 보편적 아름다움을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각 통일, 복잡성, 강도(強度) 등을 내세웠다. 감상자가 예술품을 보았을 때 미의 형식미가 완벽하면 5점, 형식미가 없다고 보면 1점을 준다. 감상자의 주관에 따라 1~5점 사이의 점수를 준다.

##### 2) 주관성

예술을 '미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활동'이라고 보았을 때, 그 핵심인 미적인 것, 즉 '아름다움'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관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어떤 것을 미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대상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대상과 미적 향유자와의 관계라고 주장함을 의미한다. 감상자 주관에 따라 1~5점 사이의 점수를 준다.

##### 3) 객관성

객관성은 미적 가치가 예술작품 자체에 속하는 것으로, 예술작품이 미적 가치를 소유하며 미적 가치는 대상 자체의 본질에 있다. 니이체에 의하면 객관성이란 최고의 형식으로 구성된 것이고, '이해관계를 떠난 사유가 아니라, 찬성과 반대를 통제하고 이들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다'라고 하였다. 감상자 주관에 따라서 1~5점 사이의 중간 점수를 준다.

##### 4) 상징적 표현성

작품에 대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함은 무엇이며 상징적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가의 여부에 관한 일차적인 검증을 시도해 보고자 함에 목표를 둔다. 감상자 주관에 따라서 1~5점 사이의 점수를 준다.

##### 5) 미적(美的) 정보

예술은 삶과 같이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 예술작품 또한 미적 즐거움과 보는 자의 입장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톨스토이는 미(美)란 즐겁고 유쾌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예술적 뛰어남의 척도는 '감화의 정도' 라고 하였을 정도로 미적 감각과 정보의 소통으로서 감정들은 외적인 기호를 통해서 표현된다고 하였다. 감상자 주관에 따라 1~5점 사이의 점수를 준다.

##### 6) 의미 정보

예술에 대한 인식의 범위와 행위의 범위의 예술로서 예술은 현실과의 관계에서 각기 다르게 해석되고 평가된다. 즉, 예술작품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읽어내는 일, 섬세한 차이를 지각하고 나아가 구별하는 일은 심미적 경험에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의미를 뜻한다. 예술작품을 아는 것은 한 방향이 아닌 다양한 방향으로 다양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인간에게 미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관심을 부여함으로써 기쁨을 고양(高揚)시키는 진정한 의미적 정보로서의 역할을 찾으며 작품 내에 포함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것을 알아본다. 감상자 주관에 따라서 1~5점 사이의 점수를 준다.

이상과 같이 정한 6개 범주와 점수구분은 아래 <표 2>과 같다.

<표 2> 6개 범주와 점수 구분

범주	소극적 의미	점수	적극적 의미
1.미의 형식	전혀 형식이 없다	1 2 3 4 5	완벽한 형식이다
2.주관성	주관성이 없다	1 2 3 4 5	주관성이 많다
3.객관성	객관성이 없다	1 2 3 4 5	객관성이 많다
4.상징표현성	상징성이 없다	1 2 3 4 5	상징성이 많다
5.미적정보	미적정보 없다	1 2 3 4 5	미적정보 많다
6.의미정보	의미정보 없다	1 2 3 4 5	의미 정보 많다.

#### 4. 예술작품 새로운 해석 실험

##### 4.1 15개 작품 선정

3장에서 선정한 범주에 맞추어서, 분석할 예술 작품으로 <표 3>과 같이 시대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작 15개를 선정하였다. 금번 평가에는 사용될 예술품은 시대별로 선정한 작품으로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작품선정에 있어서는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작품 위주로 선택하였으며, 작품 안배(按配)에 있어 시대적 순서에 따라 선정하였다.

<표 3> 15개 예술작품

	작가 /시대	작품명	시대
1	빌렌도르프	비너스	선사·고대
2	이집트	투탕카멘	
3	미론	원반던지는사람	
4	BC 25년경	라오콘군상	헬레니즘
5	레오나르도 다 빈치	모나리자	르네상스 전성기
6	미켈란젤로	시스티나성당 천장화	
7	마네	풀밭위의 식사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18~19세기)
8	밀레	이삭줍기	
9	몽크	절규	
10	고흐	해바라기	
11	로댕	생각하는 사람	
12	피카소	아비뇰의 처녀들	근현대미술 (20세기)
13	워홀	마르린 먼로	
14	백남준	다다익선-비디오 아트	
15	이중섭	흰 소	

#### 4.2 감상자 선정 및 작품 점수

이 논문에서는 대학원생 10명에게 예술작품을 보여주고 각자 주관적으로 점수를 채점하게 하였다. 이들 각자가 채점한 점수로 각 작품별 감상자들이 채점한 범주별 점수를 산술 평균한 값으로 <표 4>와 같이 얻었다.

<표 4> 감상자들의 작품에 대한 점수

범주	작품 1	작품 2	작품 3	작품 4	작품 5	작품 6	작품 7	작품 8
미의 형식	1.27	3.00	2.64	4.09	2.36	4.64	3.55	2.82
주관성	3.27	3.27	2.64	3.82	3.55	4.45	4.09	3.18
객관성	2.27	2.09	1.91	2.73	3.09	3.73	2.45	3.00
상징성	4.82	4.00	3.27	4.64	2.91	4.36	4.27	4.27
미적 정보	2.09	3.27	2.64	4.00	2.82	4.82	3.45	3.64
의미 정보	4.36	4.00	3.55	4.91	3.64	4.82	4.45	4.36
범주	작품 9	작품 10	작품 11	작품 12	작품 13	작품 14	작품 15	
미의 형식	2.09	3.18	3.18	4.91	2.00	2.70	3.50	
주관성	4.64	3.91	3.36	5.00	3.09	4.50	5.00	
객관성	2.09	2.91	2.45	2.82	2.27	2.40	3.20	
상징성	4.36	3.91	3.00	4.82	3.36	4.40	4.50	
미적 정보	2.82	3.27	3.00	3.82	1.91	3.00	3.80	
의미 정보	4.73	4.18	3.73	4.64	3.36	4.40	4.70	

#### 4.3 통계 분석

위의 데이터를 미니탭에서 다변량분석 변수 군집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변수 군집 변수는 다양한 범주의 다양한 의견을 통계적으로 군집 혹은 분류(clustering 혹은 classification)하는 방법이다. 작업은 미니탭(MINITAB 14 ver.)을 이용하였다.

##### 1) 친밀도 분석

친밀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 결과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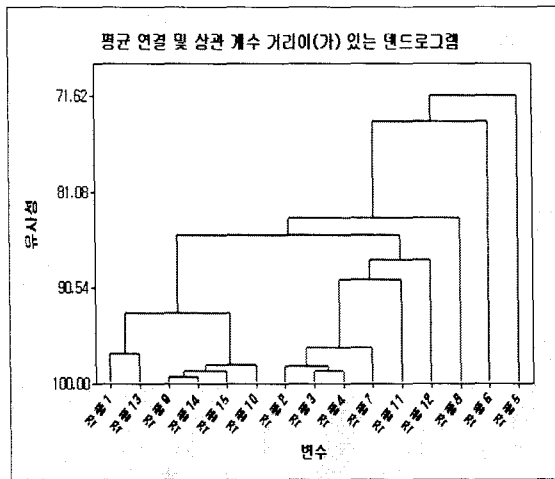
단계	군집 수	유사성 수준	거리	수준	결합된 군집	새 군집	새 군집의 관측 수
1	14	99.4990	0.010020	9	14	9	2
2	13	98.8967	0.022066	3	4	3	2
3	12	98.8623	0.022753	9	15	9	3
4	11	98.3890	0.032219	2	3	2	3
5	10	98.2679	0.034642	9	10	9	4
6	9	97.2356	0.055288	1	13	1	2

7	8	96.5178	0.069643	2	7	2	4
8	7	93.1912	0.136175	1	9	1	6
9	6	89.8727	0.202545	2	11	2	5
10	5	87.9214	0.241571	2	12	2	6
11	4	85.4149	0.291702	1	2	1	12
12	3	83.6925	0.326149	1	8	1	13
13	2	74.2662	0.514677	1	6	1	14
14	1	71.6163	0.567675	1	5	1	15

친밀도중 거리 수준은 집단간 거리로 거리가 작은 집단끼리 먼저 묶는다. 군집 단계1에서 작품 9와 작품 14가 먼저 묶였다. 이는 [작품 9(몽크)]와 [작품 14(다다익선)]이 6개 범주를 동시에 평가했을 때 가장 가까운 작품이라는 의미이다.

다음 단계에선 [작품 3(원반던지는 사람)]과 [작품 4(라오콘 군상)]가 묶였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작품 9(몽크)]와 [작품 15(흰 소)]가 묶였다. 즉 작품 9, 14, 15와 10이 한 그룹으로 묶였다. 이와 같은 식으로 모두 묶일 때까지 진행한다. 이를 아래와 같이 덴드로그램으로 그렸다.

2) 친밀도를 그린 덴드로그램을 그리면 아래 <그림 1>과 같이 그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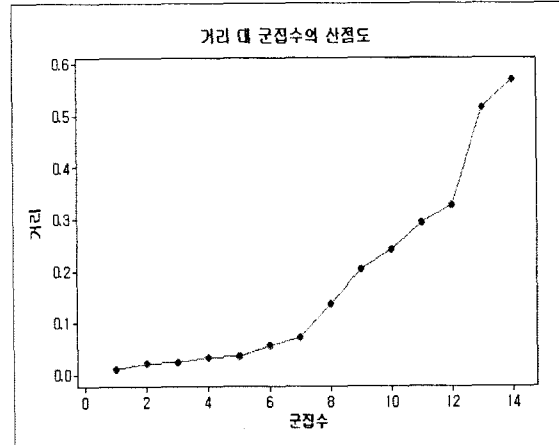
<그림 1> 친밀도 덴드로그램

3) 군집 단계중 거리 수준을 군집 단계순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산점도와 같이 그려진다. 아래 그림을 보면 군집수 7에서 그리고 군집수 12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림 2> 거리대 단계 산점도

#### 4.4 통계적 분석 후의 새로운 해석

- (1) 산점도의 그림으로 봤을 때, 7단계 및 12단계에서 거리가 멀어졌다. 이는 7단계까지 그룹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 (2) 가장 친밀한 작품은 [작품 9, 14, 15, 10 : 몽크



(절규, 백담준(다다익선), 이중섭(흰소), 고호(해바라기))이다. 네 작품이 6개 범주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대 작품으로 동시대적인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작품 사이의 공통점은 쉽게 찾을 수가 없고, 미의 형식보다는 주관성·상징성이 뚜렷하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

(3) 다음은 [작품 3, 4, 2 : 미론(원반 던지는 사람), 헬레니즘(라오콘군상), 이집트(투탕카멘)]이 묶였다. 고대라는 동시대적인 공통점이 있다.

(4) 다음은 [작품 1, 13 : 빌렌도르프(비너스), 위홀(마르틴 먼로)]가 묶였다. 두 작품 사이의 공통점은 쉽게 찾을 수가 없으나 객관적인 의미가 있다.

(5) 다음은 [작품 11, 12 : 로맹(생각하는 사람), 피카소(아비뇰의 처녀들)] : 주관성이 강한 공통점이 있다.

(6) 그 다음에서의 범주는 특별한 의미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결론에서 의미하는 바는 6개 범주로 나누어 볼 때 크게 3개의 범주가 친밀성 있는 작품끼리 묶인다는 의미이다.

- 1그룹: (원반 던지는 사람, 라오콘군상, 폴발위의 식사, 해바라기, 마르틴 먼로, 다다익선, 흰 소)
- 2그룹: (절규, 생각하는 사람)
- 3그룹: (투탕카멘, 이삭줍기, 아비뇰의 처녀들)

이상의 3그룹을 알려진 방식으로 살펴보면  
 • [작품 2, 3, 4 : 원반 던지는 사람, 라오콘 군상]에서는 서로가 조각품인 공통점으로 자세에 변화를 주는 테크닉의 진보로 설명된다. 미의 형식적 변화로 상관관계가 있다.

• [작품 7, 10 : 폴발위의 식사, 해바라기]에서는 사회적 시대상과 작가의 심리적인 상태를 표출하는 작품으로 상징성과 의미 정보를 준다. 또한 마르틴 먼로, 다다익선, 흰 소]는 현대작품으로 상징성과 의미 정보로 서로 묶이는 경향이 있으나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 [작품 9, 11 : 절규, 생각하는 사람]에서는 감상자의 주관성이 공통점으로 있다. 이는 우리의 해

석과 다른 새로운 해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예술작품’은 우리가 이미 행한 객체의 지각에 직접 현존하지는 않으나, 지각의 구조임에는 틀림없는 그 무엇을 드러낸다. 시대적으로 묶이는 경향이 있으나 많은 작품은 시대를 무시하여 묶이는 경향도 있다. 왜냐하면 만약 어떤 작품 앞에 많은 감상자들이 모인다면 그것은 그 작품이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작품의 내용들이 이해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친밀도의 근거는 미술/예술을 전공한 전문가들의 감상에 의한 결과이나, 감상자가 바뀌면 새로운 결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에 근거한 해석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은 보다 더 전문가가 감상한 점수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예술작품의 새로운 해석(공통점)을 찾으려는 목표로 시도를 하였다.

## 5. 결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예술작품 해석에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우리의 방법은 예술작품에 대해 객관화하려는 시도이다. 기존의 방법이 시대적 해석과 감상자의 주관적인 해석위주였다면, 본 논문은 예술작품을 보는 주요한 범주를 선택하여, 한 작품을 여러 감상자들이 다양한 범주로 동시에 평가하도록 하여 다양한 범주가 다양한 감상자와 조합하여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작품들간의 친밀성을 찾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시대별로 대표작 15개 작품과 작품해석을 위한 6개의 범주를 선정하였다. 작품선정에 있어서는 실험논문이기에 감상자들이 널리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시대별로 대표적인 작품을 선정하였다. 또한 범주를 6개로 선정한 이유는 예술작품을 분석함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형식적 분류와 내용적인 면을 고려하였고, 정보적 측면을 더하였다. 전문가 10명에게 자신의 판단 하에 각 작품별 범주별 5점 척도로 점수를 주었다. 각 개인별 점수는 어느 한 개인의 의사로 결정하지 않게 각 범주별 평균치를 내어 미니탐의 크러스터링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친밀도를 구했다.

얻어진 결과는 3개 그룹을 묶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그룹: (원반 던지는 사람, 라오쿤군상, 풀밭위의 식사, 해바라기, 마르린 먼로, 다다이즘, 흰 소)

-2그룹: (절규, 생각하는 사람)

-3그룹: (투탕카멘, 이삭줍기, 아비뇽의 처녀들)

위의 작품들이 묶이는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이는 우리의 해석과 다른 새로운 해석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예술작품의 새로운 해석(공통점)을 찾으려는 목표로 시도를 하였다.

이번 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예술작품의 객관화 혹은 수치화의 기여에 있다. 지금까지 객관화하지 못했던 예술 영역도 보편화 및 객관화가 가능하다는 시도를 보였다. 또한 친밀도에 의한 시대를 초월한 예술작품을 묶는 작업을 통하여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고, 새로운 해석 하에 알 수 없었던 작가의 숨은 의도를 이해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새로운 해석으로 앞으로 예술작품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추후 연구과제로는 본 논문에서 추구하는 예술작품의 다차원 해석과 객관화를 위해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범주 선정에 대한 이론적 보완이 필요하며 또한 예술작품 해석에 있어 보다 더 전문가 집단이 작품수치화에 참여하여 새로 얻은 결과로 실증적인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작품선정 시에 시대적, 장르별, 지역성에 따라 구체화된 작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시도가 기존의 것과 다른 새로운 시도인 다양한 검증이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 [1] 아도르노, 『아도르노의 미학이론』, 문학과 지성사, 1999
- [2] A. 리샤르, 『미술비평의 역사』, 열화당, 1995
- [3] E. H. 고프리치, 『서양미술사』, 열화당, 1977
- [4] ELLEN WINNER, 이모영, 이재근 역, 『예술심리학』, 학지사, 2004
- [5] 캐롤 스트릭랜드, 김호경 역, 『클릭, 서양미술사』, 예경, 2000
- [6] 네이던 노블리, 『미술의 이해』, 도서출판 예경, 1993
- [7] 니코스 스탠고스, 성완경 외 역, 『현대미술의 개념』, 문예출판사, 1994
- [8] 로버트 린튼, 『20세기의 미술』, 도서출판 예경, 1993
- [9] 수잔 K, 랭거, 이승훈 역, 『예술이란 무엇인가』, 고려원, 1985, pp.126
- [10] 김형진, 『문화예술의 퓨전적 해석』, 도서출판 한솜미디어, 2003
- [11] 미술사연구회, 『미술사연구 제2호』, 1988
- [12] 전경수, 『문화의 이해』, 일지사, 1994
- [13] 전경수, 김리나 역, 『미술작품의 분석과 서술의 기초』, 시공사, 1995
- [14] 진중권, 『미학오디세이 1, 2』, 새길, 1994
- [15] 최승규, 『서양미술사 100장면』, 가람기획, 1996
- [16] 한국문화정책연구원, 『2002 문화정책논총 제14집』, 2002
- [17] Andre Richard, 『La Critique D'Art』, 1997
- [18] Susanne K. Langer, 박용숙 역, 『Problems of Art』, 문예출판사, 1999
- [19] Udo Kultermann, 김문환 역, 『예술이론의 역사』, 문예출판사, 1997